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87호 【루게 제23039호】주제 99 (2010)년 3월 28일 (일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공연을 보게 된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하여 관람자들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장내가 떠나갈 듯 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백성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 김영일동지, 김양건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과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동지,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의 책임 일군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교향악단에 출연자들은 이날 공연무대에 관현악서곡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 현악합주 《초소에 수령님 오셨네》, 관현악 《더 높이 더 빨리》, 《돌파하라 최첨단을》, 《내 고향》, 교향곡 《내 고향의 정든 집》, 즉판3중주와 피치카토를 위한 현악합주 《처녀의 노래》, 관현악 《애곡》,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등 다채로운 종목을 울렸다.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우리 혁명이 걸어온 영광에 찬 로정을 긍지높이 노래하였으며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혁명위업과 강성대국건설위업을 기어이 완성하고자할 무

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또한 출연자들은 배합관현악의 독특한 울림과 잘 짜인 안상들로 민족적 향취를 진하게 풍겨주면서도 관현악의 깊은 정서력을 남김없이 파시함으로써 창작도 편성도 형상도 철두철미 우리 식으로 할데 대한 우리 당의 문예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관람자들은 눈부시게 발전하는 우리 교향악의 위력을 시위하는 공연을 보면서 이 땅에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펼쳐주시고 근로인민을 참다운 예술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게 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으며 대고조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당창건 65돐이 되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대변혁의 해로 장식해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휘황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노도와 같이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역센 기상이 나래치는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어버이장군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의 총성의 열정으로 하여 장내는 불도가마냥 끓어번지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환호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담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공을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국립교향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이 높은 예술적기량을 가지고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아름답고 풍만한 예술형상으로 그려내어 우리 인민의 문화정서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체교향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국립교향악단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은 주체적인 교향악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더 높이 울려 주체교향악의 위력을 만방에 펼쳐갈 총성의 결의에 넘쳐있었다.

경제선동의 북소리높이 대고조어로 추동 각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

공동시설과 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발표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공동주요를 피리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성과 함께 10월의 대추진장에 뗏없이 들어설 자신만만한 투지로 편일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대중의 드높은 열의에 맞게 각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전투현장을 화선식정치사업의 활무대로 삼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기 위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나감으로써 모든 부문, 모든 전선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선동을 더욱 격조높게 함으로써 대중을 로력적위협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올해 정초에 완공단계에 이른 레성강청년 2호발전소 건설장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소환의 강추위

속에서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건설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제선동의 과녁을 레성강청년 2호발전소 완공기일을 앞당기기 위한데로 정한 황해북도 당위원회는 도안의 모든 선동 동향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선동공세를 드세게 들어대기 위한 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 건설장들마다에서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고있다.

레성강청년 2호발전소건설장에 내려간 도당위원회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눈길을 밟으시자 정초에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가슴뜨거운 사실을 되새겨주면서 장군님께서 주신 전투적과업을 결사판철하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대중의 양양된 혁명적열의에 맞게 도당위원회는 집중적인 경제선동활동으로 전투적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의 면밀한 조직사업에 따라 시, 군 기동예술선동대가 레성강청년 2호, 3호, 4호발전소건설장

에 나가 집중경제선동을 맹렬히 벌려나가고있다. 10여대의 방충선전차들은 방사포들의 일제사격과 같은 위력을 떨치고있다. 그중에서도 레성강청년 2호발전소건설장에 달려간 도에출단, 도에출선전대 배우들의 힘있는 경제선동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 관철에 펼쳐나선 건설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사기를 북돋아주고 온 건설장에 비약의 폭풍이 휘몰아치게 하고있다.

경제선동의 북치는 당일군들이 먼저 잡아야 한다. 평안남도당위원회는 당일군들로 경제선동을 뜻고 인민경제의 선봉부문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에 내려가 집중적인 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려 대중을 새 기적창조에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100여명의 당일군들로 조직된 경제선동대는 승리자동차면합기업소, 천성청년련합, 순천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중요단위들을 순회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수만명을 대상으로 경제선동을 벌려왔다.

전투성과 호소성이 맥박치는 이들의 경제선동에 고무된 도내 석탄공업부문의 당원들과

살림집골조공사 적극 추진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에 동원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맡은 살림집건설을 위한 방대한 량의 기초공사에 이어 건물골조공사를 본태있게 다그쳐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응대하고 보람찬 건설사업을 일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으로, 대담한 공격적으로 본태있게 벌려 선군의 기치따라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혁명적기상과 위력을 높이 펼쳐야 합니다.》

평양시건설관리국아래 여러 단위들과 조선인민군 리십학, 양동원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건설현대를 비롯한 많은 단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맡은 살림집기초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 기세로 건물골조공사에 들어가 혁신의 불길들을 계속 높이고있다.

은 나라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는 요즘 수도

의 살림집건설장에서 이룩되고있는 이 성과는 가까운 앞날에 혁명의 수도 평양시에 만수무강의의 살림집과 같은 현대적이며 손색없는 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려는 당의 응대한 구상이 현실로 꽃피어나고있음을 보여주는 자랑찬 결실이다.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위한 중앙연합지휘부에서는 살림집건설을 제기일에 손색없이 완공할 수 있게 시공단위들에서 공사계획들을 면밀히 세우고 말은 살림집들의 기초 및 골조공사를 본태있게 다그쳐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두고있다.

지구별로 나온 공사지휘부들과 시공단위들에서는 현장을 들쭉게 하는 화선식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고 공사의 속도와 질을 보장하는데 힘을 넣어 실적을 부단히 높이기 위한 투쟁으로 건설자들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조선인민군 리십학, 양동원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백두산혁명군인의 위용을 뽐내며 공사에 필요한 많은 량의 자재와 철근을 마련해놓고 살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봉, 감비아, 세비갈을 공식친선방문하기 위하여 출 발



【평양 3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가봉공화국, 감비아공화국, 세비갈공화국을 공식친선방문하기 위하여 27일 특별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최창식보건의상, 김형준 외무성 부상, 리명산 무역성 부상, 기타 수행원들이 함께 떠났다.

비행장에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궁석웅 외무성 부상, 리봉훈 보건성 부상과 류홍재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대사가 전송하였다.

인민소비를 더 많이, 더 좋게! 여러가지 형태의 편직물생산을 늘인다

당창건 65돐을 승려자의 대추진으로 빛내일데 대한 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선교편직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여러가지 형태의 편직물생소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매달 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총공격전의 기상을 떨쳐온 공장의 로동계급은 23일 현재 1.4분기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앞당겨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혁명을 일으켜 질 좋은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고 문명하게 할수 있습니다.》

선교편직공장에서 지난해보다 더욱 다양하고 그 질이 한계만 높아지게 되었다.

지금 공장에서는 편직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직조직장에서는 기계들이 높은 정지수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공장장부문의 일군들은 수요자들의 기호에 맞게 편직물의 형태를 다양하게 하고 그 질을 높이는데 관심을 돌리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두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종업원들속에서 기술혁신과 새 제품개발을 위한 현상모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착상이 기반한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게 하고있다. 그리하여 인민들이 좋아하고 즐겨찾는 봄가을의, 겨울을 비롯한 제품의 종류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을 더욱 힘있게

본사정치보도반
본사기자 지원철
본사기자 리철욱

